

판

VOL. 15
KT노동조합 소식지

판

KT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만드는 '판'에서
즐겁게 일하는 조합원의 모습을 그려가는
소식지가 되고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단결’만이 최선이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가 아직 멈추지 않는 가운데
 연일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간 고군분투해온 조합원과 노사공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는 세계적 대유행 6개월을 훌쩍 넘어
 기약할 수 없는 긴 싸움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어떠한 명분도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으로,
 발생 초기부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에 동참해왔습니다.
 이제 장기화로 경각심이 더 커진 만큼
 노동조합은 훨씬 강화된 대책과 조치로 적극 대처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을 토대로 근무지역 방역과 긴급조치 등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회사가 이를 적극 수용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노동조합은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지방본부를 통합하는 지역조직의 창조적 재구축 작업,
 그리고 13대 집행부 마지막 단체교섭을 위한 최종점검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비록 정세가 만만치 않으리라는 전망이지만
 최선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를 기필코 완성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위기 상황일수록 단결하고 총의를 모아 전진하라는 뜻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원해주는 조합원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뒤돌아보고 웃을 수 있는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합쳐 오늘을 이겨나갑시다.



KT노동조합 위원장 김해관

Contents

KT노동조합 소식지 vol. 15

08	14	22
		
04 KTTU NEWS 주요 단신 뉴스	14 현장속으로 삶을 대하는 자세가 명장을 만든다	28 Inside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는 슬기로운 휴가생활
08 커버스토리 통합지방본부 조합간부 워크숍 개최	18 KT, KT人 2020 희망사연 공모전	30 [전문가 칼럼] 노동 이슈通 코로나19 극복 노·사·정 합의 '실행'에 힘 쏟자
10 Focus 1 KT노동조합 13대 집행부 단체교섭 준비	22 기획특집 코로나19 이후 우리 삶의 변화들	32 카툰 2020년 하반기 개정/신설 정부정책 소개
12 Focus 2 2020년 조합원과 함께하는 문화제	26 이슈&사회 뉴트로 열풍	34 독자후기 및 퀴즈 독자 당첨자 안내

판

‘판’은 일이 벌어진 자리 또는 그 장면을 뜻하는 명사로, KT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만드는 ‘판’에서 즐겁게 일하는 조합원의 모습을 그려가는 소식지가 되고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KTTU

NEWS

KT TRADE UNION NEWS

VOL. **15**
2020 June & July

제4차 산하조직 대표자 회의



KT노동조합은 7월 30일(목) 11시, 분당사옥 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제4차 산하조직 대표자 회의를 열고 현안을 공유했다. 노동조합 김해관 위원장과 중앙본부 임원 및 각 지방본부 위원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예정된 '제14대 집행부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벌인 데 대한 안건이 먼저 상정됐다. 김해관 위원장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중립적이고도 공정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해 조합원의 명예와 선택에 어긋남이 없도록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의대회'라는 명분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 발생된 데 대해 지난 7월 16일 주의 조치, 23일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어 8월 말 예정된 '2020년도 단체교섭'에 대해서도 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김해관 위원장은 "보다 깊이 있는 협상 속에 현실 가능한 성과를 쟁취해 내기 위해 수개월간 준비를 해왔다"며 "안건이 마련되는 대로 사전에 미리 공유할 것"이라고 약속한 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 조직의 비상한 결의와 실천을 당부했다.

광화문 사옥에서 폭언 및 갑질 근절 출근선전

노동조합은 7월 29일(수), 광화문 사옥 앞에서 출근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며 KT그룹 내의 갑질 근절을 다짐했다. KT노동조합은 KT에스테이트 노동조합으로부터 KT조합원 2명이 협력사 직원에 대한 폭언과 모욕 등 갑질 행위를 한 것과 관련, 유인물과 공문을 통해 KT직원에게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구받아 지난 24일(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갑질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두둔하고 비호할 수 없다는 것이 KT노동조합의 입장이다. 따라서 KT노동조합은 갑질 행위자가 본사지방본부 산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본사지방본부 위원장이 이들을 비호하고 집회와 농성을 벌인 것에 대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제 식구 감싸기'이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 삼아 갑질 행위로 KT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고, 회사에는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만반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협력사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하는 한편 더욱 존중하고 상생하는 문화가 KT그룹 내에 진정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계획이다.



삼복 흑서기 조합원 특식 제공

KT노동조합과 회사는 삼복 흑서기에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노사합동으로 현장 조합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특식을 제공했다.

- 날짜 : 2020년 7월 24일(금) ※ 중복 날짜가 휴일인 관계로 앞당겨 시행
- 시행내역

구분	4대 사옥	그 외 기관
대상자	7천 여명	1만 6천 여명
지원사항	2,500원 / 식	2,500원 / 인



2020년도 하반기 신입 조합원 특강

KT노동조합은 7월 17일(금) 그룹인재개발실(원주)에서 신입 조합원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신입 입문교육 대상은 2019년도 하반기 4차 산업 아카데미 인턴에서 전환된 36명이다. 신입 조합원 특강은 ▲KT노동조합 구성과 조직소개(김근배 교육국장) ▲KT 복지제도 소개(박병규 복지기획국장) ▲다운플랜 서비스 안내(홍정성 조사통계국장)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 강사로 나선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노동조합의 역할과 조합 활동은 물론 KT에서 시행하는 인사, 복무, 복지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최장복 조직처장은 특강 인사말에서 "KT의 일원이 된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하반기 단체교섭 등 중요사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도 하반기 화상영어 교육프로그램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KT노동조합과 회사는 2020년도 하반기 초등자녀 화상영어 교육프로그램 대상자 210명을 선정했다. 조합원 자녀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이번 초등자녀 화상영어 교육프로그램은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초등 4~6학년 자녀를 둔 조합원과 직원의 신청을 받았다. 선정 과정은 KBN 방송을 통해 노사 1명씩, 노동조합 박병규 복지기획국장과 경영지원실 장인옥 경영지원담당이가 기관별 박스추첨으로 공개 진행됐다. 선정된 총 210명의 학생은 오는 2020년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화상 영어교육을 받게 된다. 지원하는 교육 콘텐츠는 Rhythm & Beat 교재 및 원어민 화상영어, Writing 첨삭(주 1회), Junior TOEIC Test(격월)가 제공된다. ※ 최종 선정된 직원에게 개별 안내 진행 ※ 선정자 및 예비자 명단은 KT노동조합 홈페이지 자료실 [문서정책] 참조



위원장, 전복 및 총복 지방본부 현장순회

KT노동조합 김해관 위원장은 6월 24~25일 양일간 전북유선운용센터지부, 충북본부 지부 등 전북, 충북지방본부를 순회하며 조합원들을 만났다. 김해관 위원장은 "집행부 3년 차인 올해도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조언을 구할 것"이며, "단체교섭은 공약 이행을 이끌어낸 지난 2년간의 활동을 기반으로 다소 미진했던 부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해관 위원장은 아울러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로 임금인상 및 복지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정세가 예년보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국면이지만 기존의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다져가면서 임금 및 보수제도 개선, 짜임새 있고 완결성 있는 복지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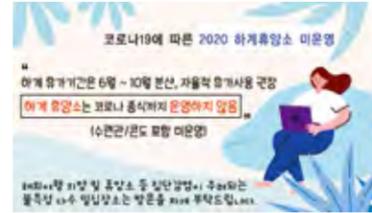
코로나19에 따른 하계휴가 운영 안내

KT노동조합과 회사는 코로나19의 연쇄적 감염 확산에 따라 조합원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기존 하계휴가를 연도 중 분산사용 및 자율 휴식개념으로 전환하여 다음과 같이 하계휴가 운영 가이드를 제시하고 감염병 예방에 집중한다.

- 하계휴가 : 2020년 6~10월 분산, 자율 휴식으로 전환하여 평균 月 2일~3일 권장사용
- 하계휴양소 : 수련관, 콘도미니엄 포함 코로나 증식 시까지 미운영

※ 참고사항

- 7월~8월 집중휴가 지양, 6월~10월 연차휴가 분산 사용으로 적절한 휴식 권장
- 해외여행 지양 및 휴양소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불특정 다수 밀집장소 방문 자제
- 휴가 중 확진자 접촉, 유사증상 발생 시 부서장 즉시 보고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2020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결과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IT연맹)은 6월 18~19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2020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고려한 지난 5월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라 연맹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모바일) 투표로 대회를 진행한 것이다. 재직대의원 155명 중 147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에서는 △2019년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 △연맹 임원(부위원장) 및 노총파견자(중앙위원, 대의원, 선거인단) 후보 선출 △규약 개정 △2020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투표 결과 안건 순서대로 각각 찬성률 97.96%, 90.48%, 85.03%, 95.24%로 가결됐다. 연맹위원 보궐선거로는 부위원장으로 SK텔레콤노조의 전환회 위원장이 선출됐으며, 노총 파견자 후보 선출과 관련해서는 노총 파견 대의원 7명, 선거인단 198명, 중앙위원 10명의 후보가 선출됐다. 규약개정은 1개 회원조합의 대의원수 40% 초과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의무와 권리의 지나친 불일치 문제를 조정했다.

2020년도 3분기 시니어 컨설턴트(Senior Consultant) 선발

정년 퇴직하는 조합원의 숙련된 기량을 지속 활용하기 위해 직무전문성이 높은 정년퇴직(예정)자를 재고용하는 제도인 2020년 3분기 시니어 컨설턴트를 아래와 같이 선발했다.

- 처우 및 수행업무
 - 고용기간 : 1년 기본 + 1년 추가 가능(우수성과자)
 - 수행업무 : 기존과 동일직무 수행 원칙
 - 총 보수 : 3,600만원/년
 - 복직사항 : 기존과 동일
- 지원자격
 - 2020년 8월 ~ 10월 정년퇴직 예정자 중 아래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최근 3년간 年평균 7 마일리지 이상(17~19년도 평가&기타 마일리지)
 - ② 1등 직무전문가 수행자 (최근 10년 내)
- 선발절차
 - 지원/접수 → 1차심사(소속부서) → 최종선발(그룹인재실)

산업안전 및 보건활동 강화를 위한 노사합동 위생점검 실시



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6월 15일부터 19일(금)까지 산업안전 및 보건활동 강화를 위한 '2020년 노사합동 위생점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위생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및 청결한 구내식당 운영,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자는 노동조합(박충범 산업안전국장, 박병규 복지기획 국장)과 회사 각 2명씩, 2개조로 운영했다. 대상은 구내식당 등 사옥 내 위생점검 시설 전체이며 식자재 관리, 원산지 표시, 사용품 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특이사항은 즉시 보고하는 한편, 지적 사항은 시정조치 요구 및 추적·관찰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0년 하계 임직원 및 가족 대상 안과/치과/피부 성형외과 의료행사 안내

KT노동조합은 임직원 및 자녀의 여름방학을 이용한 안과, 치과, 피부성형외과 할인 의료행사를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조합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병원 : KT노동조합 제휴 안과, 치과, 피부 성형외과
- 대상 : 임직원(계약직/계약사 포함) 및 가족

- 신청접수 및 행사기간 : 2020년 6월 15일 ~ 8월 31일 14시

● 신청방법

(1) 안과/치과는 kt2879@naver.com 메일로 아래사항을 기입하여 접수한 후 병원에서 개인별 일정예약

소속	진료과목	수술명	시술자 성명	나이	연락처	희망점
----	------	-----	--------	----	-----	-----

- 진료문의 전화 : ☎ 안과(010-3768-3002, 02-3446-6666) / ☎ 치과(010-3347-3395)

(2) 피부성형외과는 아래 전화번호로 직접 접수 ☎ 02-567-5400

※ 의료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T노동조합 홈페이지 자료실 [문서정책] 참조

2020년 건강검진 시행

조합원의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건강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 검진대상 : 전체 직원, 배우자 및 미혼 직원의 부모 중 1명
 - 배우자 : ERP 내 의료비 대상 등재된 배우자 限
 - 부모 : ERP 내 인사정보 가족사항에 등재된 부모 限
 - ※ 제외대상 : 재적전출자, 임시/파견직, 2020년 신입사원(경력직 포함, 발령일 '20.1.1 이후)
- 검진기간 : 2020.06.29(월) ~ 10.31(토)
- 검진유형 기준

	구분	유형	출생일
직원 본인	만 50세 이상	A형	1970.12.31 이전
	만 35세 ~ 50세 미만	B형	1971.1.1 ~ 1985.12.31
	만 35세 미만	C형	1986.1.1 이후
배우자 / 부모	만 50세 이상	D형	1970.12.31 이전
	만 50세 미만	E형	1971.1.1 이후



2020년 2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KT노동조합과 회사는 6월 4일(목) 분당사옥 회의실에서 2020년 2분기 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총 3개 안건을 논의했다. 노사는 먼저 2분기 지방 노사협의회 결과를 공유하고 이어 ▲KT명장제도 도입 ▲정년 퇴직자 건강검진 기간 연장 ▲조합원 대상 재무컨설팅 시행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KT명장제도 도입'건에 대해서는 현업부서 장기근속 직원 중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고 핵심가치 이행도가 높은 직원 중에서 3년 간 300명 수준까지 순차 선발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정년 퇴직자 건강검진 기간연장'은 2020년 정년퇴직자 대상에 한해 올해 10월 31일까지 건강검진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행, '조합원 대상 재무컨설팅'은 추진일정 등 구체적 사항을 노사협의 후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노총, 모범조합원 표창 공동 시상식 개최

KT노동조합 한윤의 강원여성국장 '여성 노동자상' 수상

한국노총은 6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모범조합원 공동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76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바일로 진행한 정기대의원대회 및 취소된 3.8 세계여성의 날, 제13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모범조합원까지 모두 공동 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KT노동조합 강원지방본부 한윤의 여성국장이 여성 노동가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여성 노동자상을 수상했다. 제112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수상자로 공로상은 이필원·김영희 前한국노총 여성국장, 평등상은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여성노동자상은 총 2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직 변화와 발전을 위한 한 걸음!

통합지방본부 조합간부 워크숍 개최

‘통합지방본부 조합간부 워크숍’이 지난 6월 29일 무주수련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지방본부 조직통합에 따른 조직간 정서적 통합 및 단결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참석한 조합간부들은 이틀간의 워크숍을 통해 통합본부 조합간부로서의 책임과 역할 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한편, 조직형태의 큰 변화에 따른 앞으로의 활동을 모색했다.



조직형태 변화 준비하고 역할 당부

이번 통합지방본부 조합간부 워크숍은 지방조직 통합의 의의와 과제에 대한 강의 및 토론이 주를 이루었다. 올해 단체교섭 활동과 같은 2020년 하반기 전망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지방본부 통합의 현황과 조직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적 과제, 그리고 통합조직 조직력 강화를 위한 조합간부의 자세와 역할 등이 그 내용이다.

양정우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본부 통합은 조합원 수가 감소되면서 전임자 임금도 제한을 받는 상황에 따라 조직을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운용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한 뒤 “기존 조직의 기득권과 간부들 개인적 입장보다는 조합원을 위한 통합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활동한다면 여러 갈등과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소식을 마친 간부들은 이어 각 조로 나뉘어 ‘조직통합

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분임토의를 가졌다. 이 시간에는 조직형태의 변화에 따른 지역조직 기능의 집중화와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혁신과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통합은 지방본부의 창조적 재구축

노동조합이 조직통합을 결의한 근본적인 이유는 통신산업의 급속한 기술적 변화와 통신시장의 과열경쟁, 그리고 한국통신의 민영화가 회사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이어지면서 현재 2만 4천 명까지 조직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전국 12개 지방본부를 유지하는 현 조직체계는 지방조직간 조합원 수의 극심한 편차와 조직운영에 대한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많은 변화 있었음에도 조직관리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거리가 먼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조직통합은 위기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이미 지난 4월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제 3호 의결안건인 ‘지방본부 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재석 대의원 240명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당시 김해관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조합의 지방본부 통합은 경영조직 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통폐합이 아닌, 시대 상황에 맞는 지역조직의 창조적 재구축”이라고 전제한 뒤 “조합간부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노동조합 각급 조직의 역할과 기능의 집중화·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직통합 과정은 대등병합이다. 조합간부들의 역량에 따라 조직통합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만큼 조직대표자의 통합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통합지방본부 조합간부 워크숍은 의미 있는 시작이다. 변화에 걸맞은 조합간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시되는 조건은 무엇보다 헌신적인 자세다. 조합간부는 온전하고 성공적인 조직통합을 위해 겸손한 자

세와 상대조직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짐과 동시에, 출신조직이라는 소수의 요구가 아닌 통합지방본부 공통의 권익이라는 원칙에 맞게 조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이끌어가야 한다. 조합간부들은 이같은 창의적인 실천이 성공적인 조직통합을 이룬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힘든 시기에 진행된 통합지방본부 워크숍을 무사히 마무리했다.

한편 ‘통합지방본부 조합간부 워크숍’은 애초 총 214명의 조합간부가 4기수로 나뉘어 기수별 1박 2일간 무주수련관과 양평 한화콘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7월 1일 광화문 사옥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조치로 1기를 제외한 이후 일정이 모두 무기한 연기되었다. KT노동조합은 코로나19가 다시 진전국면이 될 때까지 조합간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 홍보 및 교육 등 지방본부 통합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다 할 예정이다.

KT노동조합 13대 집행부 단체교섭 준비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앞두고 전담반을 가동해 설문조사와 현장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준비가 한창이다. 13대 집행부의 임기 3년차인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산업전반의 고용위기를 고려해 임금과 복지제도 전반에 걸쳐 완결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장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실시 | 단체교섭 전담반 운영

올해 단체교섭 전담반 교섭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산업전반의 이슈와 향후 발생 사항을 고려하는 폭넓은 검토가 요구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차분하게 전략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4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미 단체교섭과 관련한 사업 방향을 확정한 바, 이후 5월과 6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 전담반 워크숍을 실시하고 올해 정세 및 단체교섭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단체교섭 안건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의견 조사'가 전국지방본부와 주요 국사에서 시행되었다.



현장의견 수렴



단체교섭 전담반 회의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은 전국 지부에서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되었다. 오프라인 무기명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은 조합원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조합에 바라는 점과 올해 단체교섭에 원하는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을 이뤘다. 설문 결과는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단체교섭에 최대한 반영된다.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단체교섭 전담반을 운영, 참여한 교섭위원들은 4박 5일간 특별교육과 토론을 통해 단체교섭에 임하는 노동조합의 교섭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교섭위원들은 운영 기간 동안에 이전 단체교섭 영상자료 분석하고 현장 조합원 의견 및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노동계 동향분석과 노동조합 요구안을 검토하는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주요 요구 안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주력했다.

조합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짜임새있는 대응전략 준비

이번 단체교섭은 어느 때보다 설득력 있는 전략으로 총력을 기울여 조합원들의 임금과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각오다.

특히 전담반의 준비과정 중 주목할 만한 활동은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설문조사'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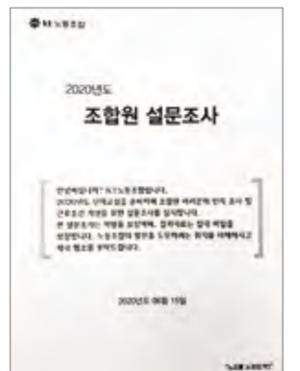
사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는 대신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단점이 있다. 전담반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오프라인 설문지를 배포, 무기명으로 보안을 엄수해 의견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회수하는 과정을 감내하며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약 90%라는 높은 참여율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집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치밀하고 꼼꼼한 분석과정을 거쳐 단체교섭 안건 마련을 위한 주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노동조합은 올해가 13대 집행부 3년차의 마지막 해인 만큼 지난 2년여의 활동성과를 심화시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다져 나가면서 임금 및 보수제도에 대한 개선, 그리고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짜임새 있고 완결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각오로 최종점검에 임하고 있다.

한편 2020년 단체교섭은 코로나19 사태와 경영상황을 감안해 현재 이르면 8월 말에 개최할 예정이다.





2020년 조합원과 함께하는 문화제

조합원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본부별 조합원 문화제가 올해는 코로나 19로 대부분 취소되면서, 일부 지부에서 간소하게나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어려운 때이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결속할 수 있었던 뜻깊은 각 행사 소식들을 모아본다.

대구지방본부 동대구지부 김광석 거리에서 낭만적인 오후를

50여 조합원이 참석한 동대구지부 문화제는 6월 2일 대구에서 가장 핫한 방천시장 일원 김광석 거리에서 치러졌다. 코로나19에도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온 조합원의 피로를 다소나마 풀고 사기를 진작하자는 취지의 이날 행사에는 중앙본부 간부들과 대구지방본부 이영태 위원장, 하중열 조직국장도 함께 참여했다. 소박한 자리였지만 오랜만에 나들이하는 기분으로 삼삼오오 야외테이블에 마주한 조합원들은 그간 쌓인 고충을 토로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며 거리의 낭만을 즐겼다.



전북지방본부 북전주지부 퇴직하는 조합원에게 선물 전하며 결속 다져

우천으로 인해 전주 건지산 둘레길 탐방일정을 취소한 북전주지부는 김해관 위원장과 최장복 조직처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인근 식당에 문화제 자리를 마련했다. 김해관 위원장은 자리한 조합원 60여명에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조합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7월 1일자로 퇴직하는 김의진 조합원에게 선물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한편 북전주지부에는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최장복 조직처장에게 운동화를 선물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대구지방본부 대구유선운동센터지부 팡! 사격으로 짜릿하게 스트레스를 날리다

대구유선운동센터지부 조합원 50여명은 평소 경험하기 힘든 사격체험으로 문화제를 만끽했다. 6월 3일 대구국제사격장에 모인 조합원들은 권총, 공기총, 엽총을 각자 선택해 격발 순간의 굉음과 명중할 때의 짜릿함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날렸다. 저녁에는 식사 자리에서 사격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이어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 자리에서 최장복 조직처장과 이영태 위원장은 조합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북지방본부 전주지부 '들꽃밴드' 공연으로 감동 선사

윤기성 전주지부장을 비롯한 전주지부 조합원 80여명은 6월 25일 외부 일정을 갖지 않고 식당에서 식사를 겸한 행사를 간소하게 진행했다. 함께한 박충범 산업안전국장과 김덕경 전북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다. 힘들었던 일은 잊고 오늘날만큼 즐겁게 보내고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방심하지 말자"는 격려와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특히 전주지부 행사의 백미는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는 '들꽃밴드'의 공연이었다. 조합원들은 밴드의 기타연주에 따라 함께 노래를 따라부르고 오랜만에 함께하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 담소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강남지방본부 용인지부 문화제 대신 환경정화활동 전개

용인지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환경정화활동으로 문화제를 대체했다. 6월 11일 오후 6시부터 중앙본부 간부와 강남지방본부 위원장 및 70여 명의 조합원은 용인 전통시장 주변과 인근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활동을 펼쳤다. 동참한 최장복 조직처장은 "상인들과 주민들이 코로나19에 슬기롭게 대처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강남지방본부 한창성 위원장과 용인지부 조합원들도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활동에 앞장서겠다"는 각오와 함께 이번 문화제의 의미를 다졌다.

전남지방본부 목포지부 자연 속 거닐며 재충전한 힐링 타임

6월 17일 목포지부는 평화광장 바다분수에서 천연기념물 500호 갯바위까지 박상수 지부장을 비롯한 56명의 조합원들이 함께 걸으며 결속을 다졌다. 바쁜 업무로 그간 가까이하지 못했던 자연을 호흡하며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조합원들은 이후 자리를 옮겨 '치맥'으로 더위를 날리며 자유로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정광우 전남위원장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이 외에도 '창원지부'를 비롯한 '울산지부'와 '부산무선운동센터지부'에서 2020년 조합원과 함께하는 문화제를 무사히 마무리했다. 울산지부는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조출한 단합의 시간을 가진 한편, 부산무선운동센터지부에서는 조합원 모두가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서로의 앞날을 다짐하는 결속의 시간을 가졌다.

名匠



노동조합,
'KT명장' 제도
첫 도입

삶을 대하는 자세가

명장을 만든다

★
강남/서부고객본부 분당지부 CS부 CM1팀
KT명장 **김금남** 조합원

한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 그리고 노하우를 갖춘 최고가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로지 자신의 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고군분투해 온 그들에게는 오랜 시간 쌓여온 장인의 열정이 중후한 빛을 발한다. 이들이 있어 KT가 더 자랑스럽다. 최고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일인자, 'KT명장' 김금남, 박옥희 조합원을 만나본다.

'KT명장'의 조건

'KT명장'이라는 칭호가 아직 낯설다는 두 사람은 '축하한다'는 말에 그저 최선을 다해 일했을 뿐이라며 겸손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김금남 조합원은 선로투자만 20년 이상 맡아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다. 1989년 입사해 경기도 광주를 첫 발령지로, 이후 성남지부를 거쳐 2004년부터는 분당지부에 몸담고 있다.

"시험실에서 3년간 근무했던 첫 발령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선로분야만 담당해왔습니다. 선로투자는 고객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케이블 등 통신시설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최단 시간에 수리해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종사하는 업무이자 KT의 핏줄과도 같죠. 때로는 호수에서 유유자적하는 백조가 물밑에서 열심히 발을 움직이듯 선로분야 종사자는 늘 백조의 물갈퀴처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옥희 조합원 역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C&R 업무를 담당해 온 분야 최고의 전문가다. 특히 그녀가 몸담은 통합리텐션팀은 고객 불만사항이나 품질 이슈로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감정적인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1991년 첫 발령을 받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은평플라자에서 창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원효지부 고객지원팀으로 자리를 옮긴 후 지금까지 C&R 업무를 맡고 있어요. C&R의 주요 목표는 고객 불만 해소와 품질개선, 고객 케어로 타사로의 이탈을 방지하는 일입니다. 또한 장기고객을 대상으로 속도 UP 및 약정갱신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여 KT의 충성고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김금남, 박옥희 조합원을 포함해 총 300명을 선발하는 'KT명장' 제도는 지난 6월 4일에 있었던 노동조합 2분기 중앙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신설되었다. 노동조합은 KT명장제도 도입 안전에 대해 3년간 300명 수준까지 순차 선발하는 등 시행 규모 및 세부 요건을 노사협의 후 시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현장의 우수한 기량자에게 그간의 노고와 노하우, 쌓아온 기술력을 인정하고 자부심을 고취

★
강북/강원고객본부 중앙지부 통합리텐션팀
KT명장 **박옥희** 조합원





★

하는 한편 전사 직원의 동기부여도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KT명장'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상당하다. '명장' 호칭 부여는 물론 '시니어 컨설턴트' 선발 우대 혜택이 주어지고 3년간 매년 100만원의 자기계발비와 20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1회)도 지급된다.

KT명장은 지난 6월 9일부터 일주일간 부서장 추천을 받아 부문/광역본부 및 그룹인재실에서 7월 17일까지 심사한 후 부문/광역본부장에 의해 최종 선발되었다. 선발 과정은 매우 세밀하고 철저했다. 현장 장기근무자 중 오랜 노력으로 전문적인 기량과 노하우를 겸비하고 핵심가치 이행에 모범이 되어 존경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전문성, 누적 기여도와 성과, 핵심가치 이행도 이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즉, 현 직무 7년 이상자 또는 Pre-Meister/Star로서 입사 25년 이상이며 최근 3년 평균 8마일(GE) 이상자 또는 최근 2년 내 CEO표창자, 그외 핵심가치 이행 우수자로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가 해당요건이다. 이렇게 선발된 KT명장은 앞으로 후배들에게 기량을 전수하고 현장 혁신과 개선을 선도하는 등 4050세대와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새로운 동기부여

KT명장 최종 선발 소식을 접한 후 두 사람은 가족과 동료들로부터 넘치는 축하를 받았다. 김금남 조합원은 두 딸이 자신보다 더 기뻐해준 것이 흐뭇하고 고맙기만 하다.

“모든 분의 덕이라 감사할 따름이죠. 사실 가족에게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취업준비생인 두 딸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선발소식을 전했습니다. 딸들이 마치 BTS 공연을 보는 것처럼 환호를 지르면서 축하해주더군요. 아빠가 열심히 살아왔기에 인정받은 거라며 정말 기뻐했어요.” 박옥희 조합원도 'KT명장'이라는 칭호가 놀랍고 뿌듯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솔직히 지금까지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하는 일이 마냥 어렵고 스트레스가 심한 업무로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KT명장'이라는, 노동조합과 KT가 공인한 명예로운 호칭이 통합리텐션팀에서 나왔다니 제

일처럼 축하를 해줘서 지금도 얼떨떨합니다.”

두 KT명장 모두 그저 묵묵히 일해 온 세월이 남들보다 조금 더 길어서 받은 것이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버티고 앞장서 온 세월만큼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많았다. 여러 일을 겪어가며 보다 단단하고 당당한 KT인으로 우뚝 선 그들은 스스로 한 뼘 더 성장했던 지난 추억을 되짚어보았다.

“강산이 세 번 변한 세월인데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2015년 분당국사 최적화 사업 추진 때였습니다. 보통 1년 6개월 정도 기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일은 급하게 결정돼 9개월 만에 완료해야 했어요. 모란국사로 이전하려고 했지만 관로 만공으로 엄청난 굴착 비용은 물론 11월까지 물리적으로 이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모란/동판교 국사로 광케이블은 이전하고, 일반전화는 아파트별 광전화로 전진배치한 후에 나머지 회선은 BBX 8개소로 이전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전용회선 전 고객에게 공사홍보를 지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설득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사최적화팀, 본부선로팀, 운용팀, 협력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업무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성장해 지금의 제가 존재하는 거겠죠.” 박옥희 조합원에게도 유독 기억에 남는 일이 한 가지 있다. “20년 전쯤 한 민원상담을 끝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당신을 심하게 대한 건 당신이 KT를 대표해서 여기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은 일에 대해 KT를 대표하는 당신에게 화를 냈다. 그러니 화내는 고객을 나쁘게만 바라보지 마라. 당신 스스로 KT 대표라고 생각하고 오늘 일은 이 자리에서 털어버리고 퇴근해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라’고요. 아버지 같기도 하고 선배님 같기도 한 고객에게서 고객 응대의 기본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 몇 년 후면 퇴직을 앞두고 있어 자칫 지치고 느슨해질 수 있는 업무 일상을 이번 일로 다잡게 되었다고 했다. 특히 김금남 조합원은 퇴직까지 만 4년이 남은

기간 동안 'KT명장'으로서 일에 대한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었다며 환하게 웃는다.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힘들어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선로업무와 청춘을 함께해 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랄까요? 자존감이 정말 높아졌다고 느낍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늘 다짐하지만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보니 조금은 업무에 대한 태도가 느슨해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직장생활이지만 새로운 원동력이 하나 생겼습니다.”

조합원 모두가 KT의 '명장'

두 사람은 무엇보다 'KT명장'이라는 칭호가 이들에게 부여하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기에 스스로에게 부여된 책임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프로라면 누구나 기본 이상의 기술은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생을 대하는 태도죠. 명장이 주는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앞으로 후배들에게 그간의 노하우를 잘 전수하고 싶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디테일한 것까지 전수하는 후진 양성으로 이 업무가 지속 발전하여 기초체력이 튼튼한 KT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옥희 조합원 역시 같은 포부를 내비쳤다.

“저만의 노하우를 동료들과 공유하고, 저와 접촉한 고객은 KT의 영구 고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많은 조합원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KT명장 선발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매진하는 조합원들에게 두 사람은 한목소리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KT에는 정말 훌륭하고 열정 가득한 선후배와 동료들이 많습니다. 비록 저희가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았지만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나서 명장이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각자 맡고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조합원 모두가 바로 KT의 미래이며 '명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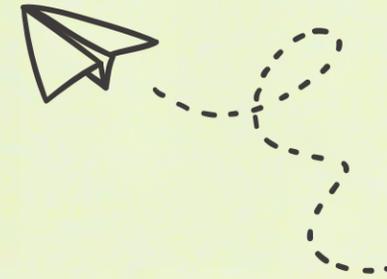


우리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2020 희망사연 공모전

코로나19가 발생한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무의미하지요. 처음에는 그저 남의 일, 먼 나라의 일 같게만 느껴졌는데, 우리가 당연하듯 지내던 하루하루가 흔들리는 것을 실감하고 난 뒤에 비로소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상은 달라졌고 계획은 기약도 없이 지연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이젠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에 씩씩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껏 어려움이 있다면 돕고 즐거움은 나누면서 그 어떤 위기도 슬기롭게 헤쳐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KT노동조합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합원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희망을 더하고자 '희망사연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모두들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그 안에는 이 위기 또한 반드시 이겨내리라는 '희망'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강북/강원고객본부 고양지사 통합리텐션팀 오현정

딸만 셋인 우리 가족은 여행을 자주 가지 못했어요. 지난 7년 동안은 바쁘다는 이유로 국내 여행도 가지 못했죠. 중학교 2학년인 막내가 지난 겨울방학 내내 집에만 있었던 것이 계속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기필코 해외여행을 가기로 마음먹고, 2월 초에 코타키나발루에 가보기로 했죠!

호텔과 항공권부터 먼저 예약하고 세부 일정을 딸들과 즐겁게 계획했던 1월 말.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외여행 자제 및 위험지역 방문 후 자가격리 지침이 전달되었죠. 여행 일정이 코앞이라서 정말 수십 번 고민을 한 끝에, 결국 숙박료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항공권도 70%만 환불받은 채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너무나 아쉬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부산과 거제도도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시기에 무슨 여행이냐는 눈총도 있었습디만, 정말 오랜만에 떠나는 가족 여행이었던 만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 인적이 드물어서 새파란 거제도의 바다와 부산 해운대 모래사장을 무사히 눈에 담고 왔답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어도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네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참 어려운 나날이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조합원분 모두 이 위기를 무사히 버텨냅시다! 다시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닐 그날까지, 파이팅!

강남/서부NW운용본부 서부무선운용센터 안양엔지니어링부 손초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저도 시무룩한 몇 달을 보냈습니다. 바로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미루게 되었거든요. 일찌감치 4월로 날짜를 잡았는데, 1~2월까지만 해도 설마 하던 일이 결국 현실로 다가와 8월 15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결혼 준비를 미뤄둔 채 잠잠해지길 바랐지만, 어느새 결혼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극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요새 또다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기운을 차리고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꼭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싶어요. 모조록 조합원 여러분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하셔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업부문 기업BDO Group 양혜정

더운 날씨에도 온 힘을 다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포상 휴가 날짜가 잡혔고, 가족 모두는 아들의 휴가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뜨거운 날씨를 피해, 을왕리해수욕장으로 여행을 갈까 시원한 계곡 옆 펜션을 예약할까 고민하며 들뜬 마음이 넘쳤죠!

그런데 아쉽게도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갑자기 다시 퍼지자 아들의 포상 휴가는 다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가장 실망했겠지만 군대 보내놓고 잘 지낼까 마냥 걱정만 하는 저도 무척이나 속상했어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많은 분 중에는 수많은 군인도 있답니다. 더운 날씨에, 그리운 가족을 보고 싶어도 참고 인내하며 씩씩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모든 군 장병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북/강원고객본부 강릉지사 동해지점
CM2팀 장영태**

마스크를 벗고 활동한 적이 언제였는지 까마득하게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다들 기원하시겠지만, 저는 조금 더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작년 12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7개월 넘게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계신 아버지를 너무나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활기차고 건강하셨기에 사실, 저는 아버지의 지금 상태를 아직도 믿기 어렵습니다. 따뜻하게 웃어주셨던 아버지의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자주 면회 가서 마사지라도 많이 해드리면 조금은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발만 동동 구르고 답답한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주치의도 이젠 마음의 준비를 하라면서 아버지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십니다. 어머니도 무척 슬프고 힘드셨던지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셨고요. 제 평생토록 이렇게 힘든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5%의 희망이지만 아버지께서 깨어나시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코로나19로 저와 같은 간절한 분들이 많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모두 끝까지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는 그 날까지,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강남/서부법인고객본부 서부법인고객1담당
서인천법인고객영업부 법인고객영업2팀 최준호**

2020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자마자 코로나19라는 불청객을 만났습니다. 어느덧 그 불청객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예기치 않은 새로운 일상도 만들어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는 '평일엔 회사를 가야 하니 주말에만 같이 놀 수 있는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들이 제게 친구 이야기나 학교와 유치원에서의 일상들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아이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생각보다 사소한 투정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이 웃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의 일상이 참 소중한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있는 조합원분들이라면 아마도 지금이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육아를 병행하느라 벽찬 일상을 겪고 있으시겠지만,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과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힘든 시기이지만 오늘 하루 가족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즐기시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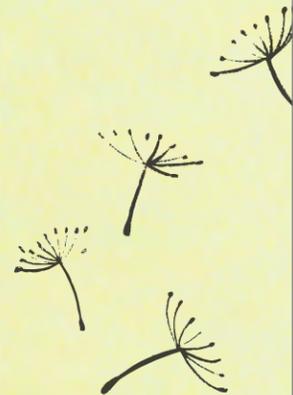
강북/강원고객본부 의정부지사 포천지점 CM2팀 이동철

들녘에 뻐꾸기 소리가 들릴 때면 매년 체육행사와 지방본부 수련회를 다녀오곤 했었지요. 바다 해변 모래밭에서 달리기 시합도 하고, 들판에서 제기차기나 단체 줄넘기를 하던 시간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그리운 추억이 되었네요. 힘든 일상을 이겨낼 에너지도 충전하고 동료들과도 다시 한번 화합하는 그 모든 행사가, 참 소중하고 아름다웠다고 새삼 느낍니다. 그래도 머지않은 미래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행사들을 실컷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가 붉은 노을을 남기며 서산을 넘어가는데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아는 건지, 어디선가 뻐꾸기도 울고 있네요.

**전남/전북고객본부 익산지사 통합리텐션팀
박세정**

팀 동료 중 등산을 정말 좋아하는 G차장님. 올해 안식년 휴가를 이용해 안나푸르나 산행을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몇십 년을 기다려서 세운 계획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결국 포기하셨어요. 대신 국내로 눈길을 돌려 백두대간을 모두 정복하신다고 합니다. 야심차게 남편과 서유럽 여행을 계획했던 K과장님은 올해 안에는 힘들겠다며, 대안으로 자전거 여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대한민국의 숨은 비경을 찾아볼 생각이라네요. 어머니는 요즘 TV로 가수 임영웅을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십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임영웅 콘서트에 꼭 보내드리겠다고 하니, 어머니는 "영웅이 콘서트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야. 근디 너무 길면 힘들니까 코로나가 빨리 갔으면 해"라고 화답하셨어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와닿는 요즘입니다. 저도 불편하고 짜증스러움이 없진 않았지만, 코로나 시국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의 소중함,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보다 차분하고 깊게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고된 시간을 보내는 모든 분에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이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를 위해서 갑갑해도 마스크를 쓰려는 마음, 고객을 위해서 인터넷 사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는 조합원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의
소중함,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다는 것



뉴노멀(New Normal)이 온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삶의 변화들

올해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6개월이 흘렀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거리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갈 수 없게 되면서, 혼자되는 것에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으나 이제는 이런 현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새로운 기준의 탄생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지난 4월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 중에 나온 말이다. <뉴욕타임스> 간판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도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인 BC(Before Corona)와 코로나 이후인 AD(After Disease)로 구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매년 유행하는 독감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과 함께 할 것이라는 의료전문가의 전망도 나왔다. 생활 속에서 감염병 위험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역 활동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만 해도 사람들은 사스(SARS)나 메르스(MERS) 때처럼 위기가 곧 지나갈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WHO에서 ‘팬데믹(전 세계적 유행)’까지 선언하자 사람들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이 시작된 것이다.

‘뉴노멀’은 원래 경제 분야에서 시작된 용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침체 기간 동안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을 의미했다. 이후 이 용어는 ‘과거에 비정상적이었던 것들이 새로운 표준이 되는 것’으로 확대되며 여러 분야에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도래한 새로운 기준’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는 어떤 새 기준들이 만들어졌을까?

집, 모든 것의 중심이 되다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의 핵심 키워드는 ‘집’이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일상생활은 집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대면 접촉

에 따른 감염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소비와 여가 활동을 집에서 해결한다.

가장 큰 변화는 당장 생존에 필요한 식생활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식당을 피하고,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배달앱 사용이 크게 늘었다. 올해 1분기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75.8% 증가했다. 집에서 요리를 하더라도 시장이나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대신 온라인으로 식재료를 주문한다. 덕분에 쿠팡,마켓컬리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자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온라인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은 견적문의가 쇄도했고 한샘·현대리바트 등 리모델링·가구 관련 기업들의 매출도 증가했다. 특히 시공·설치를 위해 외부인이 방문하기보다는 혼자서도 소소하게 꾸밀 수 있는 소형가구의 수요가 많다. 가정에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을 예방하는 제품의 판매량도 상승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집은 단순히 먹고 자는 주거공간에서 여가를 즐기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공간이 되었다. 오프라인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기는 일상 대신 집에서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이 각광을 받는 것이다. 닌텐도의 가정용 게임기 ‘스위치’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해 지금도 구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스트리밍 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의 가입자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1,600만 명이나 증가했다.

집이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취미용품과 운동용품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 회식이 줄어들면서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족’, 각자 음식과 술을 준비해 화

NEW NORMAL

UNCONTACT? ONCONTACT!!

상 채팅으로 진행되는 ‘랜선 회식’도 이제 낯설지 않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집은 삶의 중심축이 되었다.

비대면의 다양한 풍경들

한편 집 바깥에서는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뉴노멀이 되었다. 접촉을 피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다. 공공 도서관에서는 휴관이 계속 연장되자 드라이브 스루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고, 한 지자체에서는 양식어업인을 돕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활어회를 판매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신차발표회, 콘서트, 팬사인회 등 각종 행사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무인 시스템’ 역시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untact, 비대면) 수단이다. 아마존이 운영하는 무인 매장 ‘아마존고(Amazon Go)’는 미국에서만 25곳 이상이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카메라와 이미지 처리 기술을 이용해 고객이 진열대에서 어떤 상품을 잡고 카트에 담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상점을 벗어나면 스마트폰 앱으로 영수증이 배달된다. 중국의 화웨이도 올해 1월 무인 스마트 매장을 선보였고, 텐센트 역시 사람과의 접촉 없이 전자지갑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을 열었다. 국내에서도 무인편의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외식업계도 무인결제단말기(키오스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비대면으로 인해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영역 중 하나는 교육 분야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전통적

인 교육 체계를 파괴했다. 유네스코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기준으로,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전 세계 학생 중 91%(약 16억 명)가 수개월 동안 학교수업을 받지 못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교육기관은 서둘러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다. 언택트의 상황을 온택트(ontact, 언택트+온라인 커뮤니케이션)로 해결한 것이다. 대학교는 1학기 동안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만약 온라인 교육이 이대로 정착된다면 코로나19 이후에도 많은 현장 수업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업무환경을 바꾸다

코로나19는 일하는 풍경까지 바꿨다. 가장 변화가 빠른 곳은 역시 IT기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 많은 IT기업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채 실시한 재택근무였지만, 이를 계기로 직원들은 재택근무가 마냥 비효율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체감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된 이후에도 기업들은 가능한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추세다. 이는 물론 IT 기술의 빠른 발전이 있기에 가능했다. 언제 어디서나 회사와 동일한 업무환경을 만들어주는 클라우드 기술, 화상회의 등을 위한 원격 솔루션 등 관련 기술은 현재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재택근무의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도 이뤄졌다.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최근 새로운 근무체계인 ‘시프트(SHIFT, Stay Home Instead Full Time)’ 시범 평가를

진행했다. 시프트는 근무방식을 레드·옐로우·그린 3단계로 나누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레드 시프트는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진 비상상황으로 100% 원격근무를 실시한다. 옐로우는 지속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원격근무를 하되 업무 상황에 따라 15~20%가량의 직원만 출근하는 단계다. 그린은 전염병 위험이 없는 단계로 자유롭게 회사에 나와 일할 수 있다. 직원들은 매일 아침 회사 홈페이지에서 시프트 단계를 확인한 뒤 일할 곳을 정한다. 더 나아가 완전 재택근무를 도입한 신생 벤처기업도 등장했다. 이 회사 직원들은 전원 집에서 근무하다가 마치 휴가를 쓰듯 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사무실로 ‘출근’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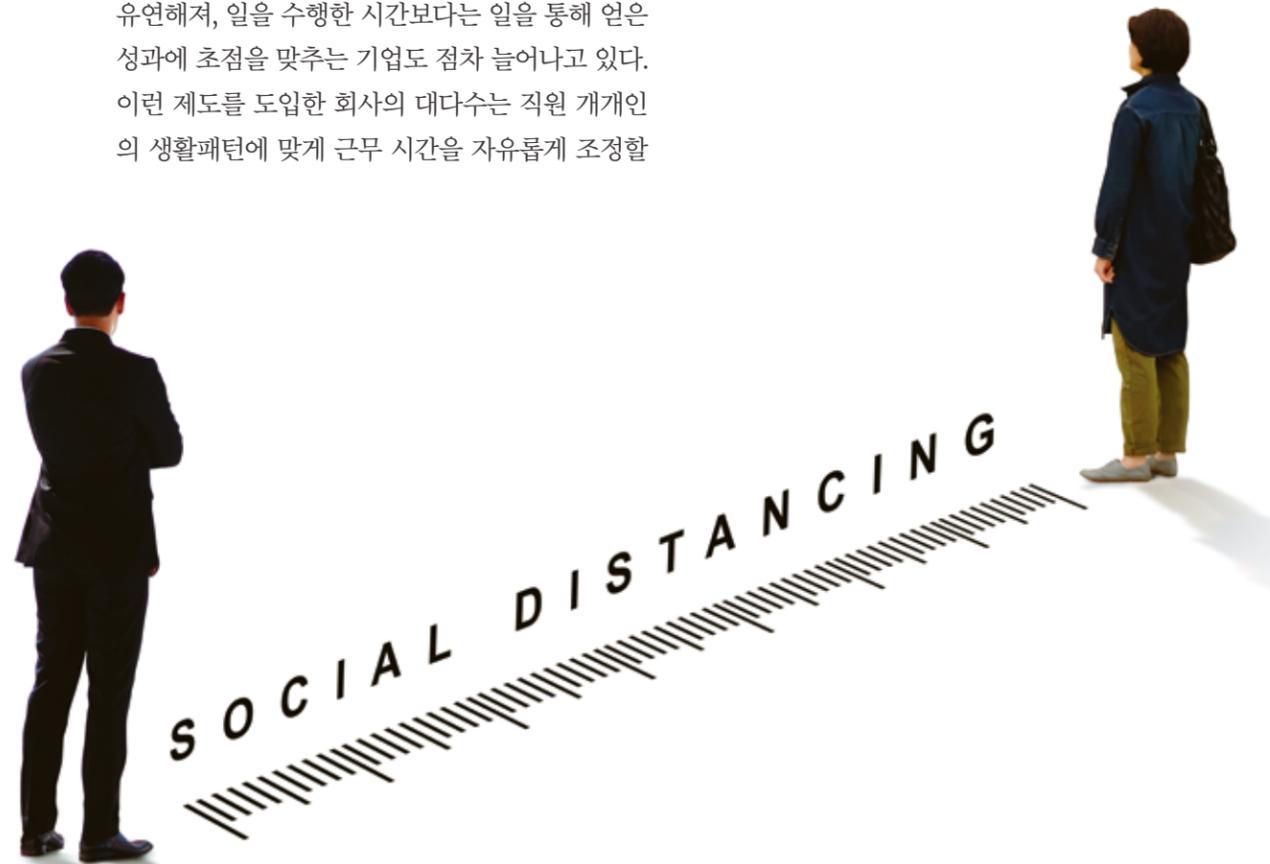
공유 오피스도 다시금 새롭게 주목받는다. 공유 오피스는 집에서 일하기 어렵거나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업무가 있을 때 기존 사무실과 집을 잇는 중간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근무 시간에 대한 개념도 유연해져, 일을 수행한 시간보다는 일을 통해 얻은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대다수는 직원 개인의 생활패턴에 맞게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꾼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출근’을 기본으로 하는 기존 근무방식을 흔들며 기업문화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뉴노멀을 대하는 자세

뉴노멀은 이미 시작되었다.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사람들과 악수하던 평범한 일상은 이제 특별한 일이 되었다. 반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특별한 상황들이 오히려 일상이 되었다. 사람들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변화에 맞춰 인간도 변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기준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일상은 변화하더라도, 삶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두렵고 불편하지만 새로운 기준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 무언가를 찾으려 할 일이다.



과거에서 찾아온 신상품?

한동안 '구식 인테리어'의 상징처럼 느껴지던 과거의 골동품이 생명력을 부여받아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1970~80년대 학교 앞 분식집에서 사용하던 초록색 점박이 플라스틱 접시나 1980~90년대 음료 회사에서 판촉용으로 나눠주던 물방울 무늬 유리컵, 가정 생필품마냥 사용되던 오렌지 주스병 등이 최근 '힙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인기다. 출시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음료가 새삼 주목을 받는다면, 1950년대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복고풍 디자인의 가전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도 뉴트로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문화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강력한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주력 세대가 바로 젊은 층이라는 점이다. 한눈에 봐도 촌스럽고 오래돼 보이는 물건을 젊은 이들은 오히려 '레어템(구하기 어려

운 아이템)'으로 분류해 가치를 높였다. 역사의 뒷안길에 묻혀 있던 브랜드의 히스토리를 찾아내 새로운 문화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힙지로'에 가보셨나요

뉴트로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곳은 역시 SNS다. SNS에는 뉴트로 관련 '인증샷'이 하루에도 수천 건씩 업데이트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유독 자주 눈에 띄는 지역이 있다. 허름한 철물점과 오래된 인쇄공장이 늘어난 좁은 골목 사이사이로 현대적 감성의 카페와 주점이 자리잡은 서울의 을지로가 바로 그곳이다. 트렌드를 아는 젊은이라면 꼭 한번 가보는 곳이라 해서 '힙지로'라는 별칭까지 붙여졌다.

개성과 신선함을 뜻하는 '힙(hip)'과 '을지로'가 합해지면서 만들어진 '힙지로'는 인쇄소로 가득한 건물과 개성 넘치는 카페 등이 어우러지면서 묘한 매력을 품고 있다. 오래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곳 같아 보이지만 그

안을 천천히 살펴보면 그 어느 지역보다 활기로 넘친다. 지난 3년 동안 새로 생긴 가게만 100개가 넘을 정도라고 하니 그 인기를 새삼 실감할 수 있게 된다.

'힙지로'는 그동안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던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가게들이 무심코 지나쳐 버리기 쉬운 골목길이나 오래된 건물들의 고층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처음 방문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 일쑤고,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렵다. 작은 표시만으로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힙지로'만의 감성이다. 이곳의 유명 맛집 대부분은 '아지트'로서의 느낌이 강하다. 누구나 알고 있는 공간이 아닌 '보물찾기하듯 찾아낸 나만의 공간'이 주는 매력은 그 어떤 장소보다 오래 기억되게 마련이다.

온라인 탐골공원

SBS KPOP CLASSIC이라는 본명이 있지만 '온라인 탐골공원'이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 있다. 처음에는 그저 24시간 스트리밍 기술을 점검하기 위해 SBS에서 개설한 채널이었다. 불과 50여 명 정도였던 접속자 수가 누리꾼 사이에 입소문을 타더니 끊임없이 증가하는 추세다. JTBC의 '슈가맨'을 통해 90년대 스타 양준일이 출연해 다시 주목받은 것도 '온라인 탐골공원'이 큰 역할을 했다.

이곳을 주로 찾는 시청자들은 주로 밀레니엄 시대를 추억하는 30~40세대. 하지만 '올드팝'을 듣듯 예전의 문화를 찾는 10~20대도 적지 않다. 직장인들이 업무시간에 방송을 틀어놓는다 해서 '노동요'라는 애칭마저 붙었다고 한다. 특히 실시간 채팅창을 가득 메운 시청자들의 다채로운 반응과 기발한 별명은 이 방송의 가장 큰 볼거리다. 그룹 god의 멤버 손호영에게는 '호다니엘(손호영+강다니엘)', 조성모는 '기도 소년'으로, 샤크라로 활동하던 려원은 블랙핑크 제니로 비유하며 '탐골 제니', 백



지영은 여성 솔로로 활약 중인 청하에 빗대어 '탐골 청하', 파격적인 콘셉트를 소화한 이정현은 '조선의 레이다가가', 별은 '탐골 아이유'로 불리는 식이다.

일상으로 스며든 뉴트로

식품 업계에서도 뉴트로라는 중요한 화두다. 삼양식품은 1972년 처음 선보인 국민 과자 '별뽕' 탄생 47주년을 기념하며 한정판 '레트로 별뽕

빠이'를 출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또한 '추억의 요요' 등 장난감과 패키지로 판매해 1시간 만에 1,000개 한정 수량을 완판하는 기염을 토했다.

델몬트 유리병은 선물세트로 재탄생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 밖에도 1970년대 진로 소주를 재해석한 '진로이즈백', 1982년 첫선을 보인 후 1991년까지 판매된 농심의 '해피라면' 등 중장년 층에게는 198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젊은 층에게는 '뉴트로 감성'으로 어필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뉴트로라는 과거의 것을 가져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는 점에서 복고와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단순한 향수를 넘어 거기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뉴트로. 오늘은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있는 '뉴트로 감성'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새로운 문화를 말하다

★ **뉴트로 열풍** ★

복고는 끊임없이 등장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요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뉴트로라는 복고(Retro)와는 그 개념이 조금 다르다. 4050 혹은 그 이상의 세대가 과거를 회상하며 향수에 젖는 복고와는 달리, 1020세대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예전의 것들을 변주해 새로운 문화로 탄생시키는 것, 본질은 그대로이되 새로운 해석을 덧붙여 현대화시킨 것, 그것이 바로 뉴트로(New+Retro)다. 보는 이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시대의 큰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새로운 문화현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는 슬기로운 휴가생활

휴가에도 바야흐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다. 코로나19 여파가 가장 큰 이유겠지만, ‘휴식’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나만의 휴가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성수기의 인파, 바가지요금, 더불어 이동에 필요한 오랜 시간 등 온전한 휴식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다. 이번 호에서는 사람이 북적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휴가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한다.



집 앞 호텔에서 즐기는 휴가, 호캉스

멀리 가지 않아서 좋고,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다. 시간이 절약되고, 잘 정돈된 공간에서 온전히 휴식에 집중할 수 있다. ‘도심의 호텔에서 즐기는 시원한 바캉스’라 해서 호텔(Hotel)과 바캉스(Vacance)를 합성해 ‘호캉스’라 이름 붙여졌다. 수영장이나 피트니스, 사우나, 식당 등 호텔의 다양한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 주변 지인들을 초대하기에

도 용이해 언제부턴가 슬기로운 휴가의 한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평소라면 다소 비싸게 느껴지겠지만, 항공권이나 숙박비 등에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는 여름철임을 감안한다면 가까운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편이 오히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혼잡한 여행지가 아닌, 한적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여행보다 큰 장점이다. 여행의 기분은 한껏 느끼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은 덤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호텔 관계자들과의 접촉조차도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AI기술이 접목된 비대면 무인호텔도 등장하고 있다.



내 집이 곧 휴양지, 홈캉스

여건상 호캉스마저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홈캉스’라는 대안이 있다. ‘집에 머물며(Stay) 보내는 휴가(Vacation)’라 해서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쉽게 홈캉스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홈캉스를 즐기는 사람들은 집에서 주로 영화나 음악을 감상하거나 독서, 게임 등의 취미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숙박은 집에서 해결하고 당일치기 근교 여행이나 수영장, 박물관 등을 다녀오는 경우도 많았으나 올해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여파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가구를 재배치하고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이곳이 새로운 곳이라고 느낀다고 한다. 내 방, 책상과 침대의 위치를 바꾸고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던 것들의 배치를 조금씩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미뤄왔던 방청소나 옷정리도 좋다. 오래된 나의 안식처가 새로운 휴양지가 되는 마법을 느껴보자.



내 방도 훌륭한 캠핑장, 홈핑

언젠가부터 사회적 문화로 자리잡기 시작한 캠핑에도 ‘언택트’ 분위기가 스며들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캠핑장조차 꺼려진다는 이들이 집에서 캠핑의 분위기를 느끼는 홈캠핑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름하여 ‘집콕 캠핑족’. 나만의 스타일로 꾸미는 방구석 캠핑은 자신만의 감성을 담은 인테리어 소품 등을 활용한 감성 캠핑부터 다양한 캠핑 용품들을 활용해 집안의 테라스나 옥상, 베란다, 거실 등을 캠핑장처럼 꾸며 야외 캠핑장 못지않은 낭만과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주변의 시선을 전혀 신경쓰지 않



발길 닿는 모든 곳이 휴양지, 차박

최근 자동차에서 잠을 자며 여행을 하는 ‘차박(車泊)’ 캠핑이 인기다. 말 그대로 차를 타고 떠난 뒤 차에서 자고, 캠핑하며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차박 문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주말을 이용한 짧은 국내 여행도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차박은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특히 인기다. 인스타그램에 ‘#차박’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만 11만 개가 넘는다.

차박은 기동성이 핵심이다. 또 캠핑한 뒤 나오는 쓰레기는 수거해서 가져와야 하기에 음식도 최소한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 캠핑의 기본은 내가 머물던 자리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내가 만든 쓰레기는 반드시 내가 가져온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자연이 주는 평화를 마음껏 누리보자.



랜선 타고 떠나는 세계, 랜선여행

어딘가로 직접 떠나지 않아도 좋다. 무엇보다 인터넷 강국, 세계 최초 5G를 구현해 낸 우리나라의 강력한 통신망은 여행마저도 새로운 문화로 거듭나게 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떠날 수 있는 ‘랜선여행’이 이제는 일상에서도 짬짬이 즐길 수 있는 여행의 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직접 찾아가 오감으로 느끼는 감흥에는 비할 수 없지만 언젠든, 어디로든 전 세계의 유명 여행지를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다는 건 분명 또다른 매력이다. 거창한 준비물도 필요 없다. 스마트폰이나 PC만 하나 있으면, 내 방은 물론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도 훌륭한 휴양지로 변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양양 서핑 투어, 남원 옷칠 문화 탐방 등 국내의 다양한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다.

TIME IS RUNNING OUT!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 박성국



코로나19 극복 노·사·정 합의 '실행'에 힘 쏟자

벼랑에 선 노동취약계층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 고용유지 지원 빠르게 이행해야

코로나19는 가난한 이들만 잡았다. 최근 직장갑질 119의 직장인 1천명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 경험자는 12.9%였다. 상용직 응답자 가운데 실직자는 4%에 그쳤으나 비정규직·특수고용직 응답자 중 실직자는 25%에 달했다. 상용직 응답자 중 19%, 노동취약계층 응답자 중 68%는 소득감소를 경험했다. 그럼에도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자금 등 정부지원은 상용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는 단체교섭·협약이라는 자구책으로 버티고 있지만 미조직 노동취약계층은 맨몸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맞서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사회적 대화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고, 조직도 없는 노동취약계층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다. 지난 5월에 가동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60여 일 간의 논의 끝에 잠정합의에 이르렀으나 최종 협약체결에는 실패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한 민주노총이 7월 2일로 예정된 협약 체결식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부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탓이다. 반면 사회적 대화에 함께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잠정 합의안 후속 논의와 이행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잠정합의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왜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을까.

긴축재정시대의 사회협약

우리나라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만든 노·사·정 합의문은 모두 3건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2·6 합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월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2·23 합의)가 그것이다. 전자는 외환위기, 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려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재임 중인 2020년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잠정 합의(이하 7·2 잠정합의)는 앞서 두 번의 위기협약과 비교된다. 7·2 잠정합의는 1998년과 2009년의 '위기협약'이라는 공통분모를 갖지만 합의내용에 깔려있는 기초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그렇다면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먼저 2·6 합의와 2·23 합의를 살펴보자.

2·6 합의는 10장 90개 항목으로, 2·23 합의는 5장 64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형식적으로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2·6 합의는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시대적 조건을 반영했다. 2·6 합의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에서 재벌개혁과 경제정책,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포괄했다. 노사관계와 사회복지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정책, 산업정책, 구조조정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 2·23 합의문은 일자리 나누기와 유지, 민의 적극적 역

할,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확충, 합의의 확산과 이행 등으로 이뤄져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 일자리 나누기와 임금반납, 실업대책에 주안점을 뒀다. 2·6 합의가 다양한 이슈를 포괄한 데 반해 2·23 합의는 특정한 이슈에 국한한 합의를 도출했다. 반면 두 협약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초 하에 노사의 고통분담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2·6 합의에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방안(정리해고제·파견근로 확대)이, 2·23 합의에는 임금 동결·반납 또는 절감과 고통분담,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가 담겨있다. 두 정부는 노사에 세제지원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의 선도역할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대중·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따라 긴축 재정시대를 이끌었고, 사회협약은 그에 국한됐다. 위기협약은 사회복지와 고용안전망 확대에 기여했지만 두 정부의 긴축재정 기초를 실질적으로 넘어서지 못했다.

7·2 잠정합의, 적극적 재정시대 청신호?

7·2 잠정합의문은 5장 6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 다양한 이슈를 담았던 2·6 합의에는 7·2 잠정합의는 미치지 못한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5장 64개 항목을 합의한 이명박 정부의 2·23 합의와 유사하다.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2·23 합의와 7·2 잠정합의는 매우 대조적이다. 7·2 잠정합의에는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과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와 산업 생태계 보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방역체계 및 공공인프라 확대,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등을 담았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고용유연성 확대, 임금 동결·반납·절감 등을 전제로 한 과거 합의와 달리 이번 합의에선 기업의 고용유지와 노동자의 임금을 교환하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로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특수고용직·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지원과 대책, 그리고 노사의 협력방안을 반영했다.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특별고용위기기업중 지정 연장 등 위기에 몰린 기업과 산업 노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거나 연장

했다.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자금 지원에는 제조업 협력업체 지원 등 간접노동자에 관한 대책이 포함됐다. 경제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더라도 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업체의 고용유지와 공생을 염두에 둔 셈이다. 또한 경제정책과 거시경제 기초의 변화와 의지도 읽을 수 있다. 7·2 잠정합의문에는 적극적 거시경제 기조로의 전환과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역할 강화를 분명히 명시했다. 고용유지를 위한 공공부문 사용자로서 정부의 역할도 못 박았다. 이러한 점은 경제정책 조향에 긴축재정 기초를 깔았던 김대중·이명박 정부 시절의 2·6, 2·23 합의와 대비된다. 노동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지원대책도 과거의 합의와 7·2 잠정합의를 가르는 차이이다.

7·2 잠정합의에는 전국민고용보험 확대, 방역대책 및 공공의료 인프라 등 고용안전망과 공공의료 확대가 포함됐다. 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 적용 입법화, 아르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추후 논의도 합의문에 담겼다. 노동취약계층 고용안전망과 복지 및 공공의료 쟁점들이 포괄된 점은 주목되지만 이런 조항들은 즉각 실행보다 향후 계획에 가까운 것이어서 아쉽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거나, 고용보험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부 일반회계 지원도 합의 이행에 무게가 실려 있다. 특히 보건의료 인력확충 종합계획 수립도 필요성만 언급했을 뿐 언제 이행할 것이라는 구체성이 미흡하다. 이렇듯 핵심 조항들이 향후 계획과 과제에 포함되니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때문에 정부와 경영계를 불신하는 일부 노동계를 설득하는데 한계가 드러났다. 민주노총 일부 임원들은 이번 합의에 “해고금지와 생계소득보장, 즉각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상병수당 실행”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7·2 잠정합의는 코로나 19로 촉발된 고용불안이 노동취약계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노·사·정이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일부 노동계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7·2 잠정합의는 완결된 것은 아니다. 후속 논의와 이행점검이 더 중요하게 보인다. 노동계는 끝까지 책임을 다했으면 한다. <끝>

하반기 ?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개정/신설 정부정책 소개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기본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 120% 이하로 확대
 (지자체 예외지원 대상 : 120% → 140%)

● 7월 1일부터

2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4가 백신,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지자체 예외지원 대상 : 120% → 140%)

● 10월 1일부터

3 눈, 흉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사의 판단하에 눈, 흉부(유방)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 의심 증상이 발생, 검사가 필요한 환자 대상

● 하반기 중 예정

4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안전조치 의무
 어린이 시설 종사자 등의 응급처치실습 등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11월 27일부터

5 이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벌금형 삭제 및 징역형 상향, 광고·구입·시청 행위에도 처벌

● 6월 2일부터

6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의 전자 인증서비스를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법적 효력 부여

● 12월 10일부터

7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할 시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

● 10월 이후

8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등
 분쟁조정신청이 되면 피신청인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

● 12월 10일부터

9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3회 이상 제한속도 100km/h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 12월 10일부터

10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최고속도 25km/h미만, 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대상

● 12월 10일부터

“여러분~ 중요한 혜택들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무더위에 모두 건강하시고요~”

